타는 목마름으로 부른 민주주의 만세

김 지 하

*김지하 시인은 1971년 「오적」 필화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1975년 석방된 후 동아일보에 게재한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폭로로 다시 구속되어 7년여의 감옥생활을 했다.

절두산

내 외로운 삶에서, 내 괴로운 감옥살이에서 떠나지 않고 내내 거기 그렇게 우뚝 서 있던 산봉우리 하나 있으니 한강가의 저 시커먼 절두산(切頭山)이다.

예부터 나라의 역적을 목쳐 죽였고, 천주교 박해 때는 김대건(金大建) 신부의 목이 버려졌으며 상하이에서 돌아온 김옥균(金玉均)의 시체가 부관참시(剖棺斬屍), 능지처참당한 모래밭도 절두산 아래 강변이다. 지금은 그 꼭대기에 성당과 기념관이 있으나 그 무렵 아무 것도 없었고, 아무 표지도 없었다.

2월 바람이 몹시 불던 날, 햇살은 한강물 위에 번뜩번뜩 빛날 때 한 오후 나는 문화패 아우들과 함께 절두산 바로 아래 김옥균의 시체가 토막나고 수급이 효수되었던 모래밭 그 자리에 앉아 이별의 술잔을 나누었다.

절두산 너머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하게 아코디언 켜는 소리가 들려왔었다. 나는 소주잔을 고균(古筠)의 반역의 자리 위에 한 번, 대건의 반역의 자리 검은 바위 밑에 또 한 번 붓고 나서 나와 우리의 반역의 자리인 내 몸 안에도 한번 부었다.

"나는 아무래도 감옥에 갈 것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감옥에는 나 혼자 가는 것으로 만족해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내가 하려다 못한 일, 하고 싶지만 성공시키지 못한 일을 하고 또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민중민족문화운동이며, 그중에도 특히 탈춤이나 마당굿 · 풍물같은 연행예술이다. 또 판소리나 시나위, 정악(正樂)이나 민화(民畵) 등이다. 힘을 모아라. 그리고 대본을 쓰는 데서 힘이 부치거든 황석영씨에게 도움을 청해라. 문체에서 제일 너희들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황석영이다.

다시 부탁한다. 정치를 작품 안에서 표현은 하되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 말아라. 정치에 기울면 예술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내내 명심해다오. 부탁한다. 정치는 나 한 사람으로 그치자. 너희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예술을, 그 전통의 현대화를, 민족적 형식 속에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사상을 담아 수많은 씨알들을 키워내야 한다. 마당에서, 판에서, 그리고 극장이나 공회당에 들어가더라도 그 극장, 그 공회당을 마당과 판의 원리로 역동화시켜서.

나는 이제 그만 이별해야겠다. 금방 가지 않더라도 나는 틀림없이 수배될 것이다. 잡혀가거나, 잡히지 않으면 계속 지하에서 활동한다. 정치조직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나는 그와는 또 다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 말라. 시간이 가면 자연히 알게 된다. 우리 부모님 가끔 들여다 봐다오. 우리 집사람과 아기 부탁한다. 우리 아버지 가끔 술 좀 사드려다오. 부디 내가 아끼던 것들을 아껴다오.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해다오. 너희들은 내 후배라기보다 나의 친동생들이다. 부디 잘 있거라."

바람은 풍덩풍덩 불고 차디찬 물 위에서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민청학련

문리대 아우들은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조영래 아우는 자기 일을 착실히 진행했다. 전국 대도시 대학생들 사이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탄생하여 어떤 대학은 시위에 돌입하고, 어떤 대학은 사전에 봉쇄돼 주동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전 조영래 · 장기표 등이 전학련을 시도했고, 멀리는 민통(民統)과 민비(民比)가 있었지만 6 · 25 이

후의 현대사에서 전학련이 성공한 것은 이번 민청학련이 처음이었다.

밖으로는 이철이 지도자였으나 실제의 조직책은 유인태였고, 그 뒤엔 서중석이 서 있었으며 서중석은 조영래와 연결되었다. 활발했던 기독학생들의 시위조직 리더는 역시 나병식이었고, 그 뒤엔 또한 조영래가 있었다.

나는 나의 구상이 성공했음을 느꼈다. 나는 극비리에 유인태 아우를 만났다. 앞으로 계속 시위 등을 지속할 것인데, 특히 지방대학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므로 종교나 기타 학원의 세력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유인태 아우의 얘기였다. 내 부탁은 삼민(三民) 테제는 불변이고, 일본 등 외국과의 관계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며, 구속 체포될 때는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하라! 그리고 건강 조심!

그 길로 나는 원주의 장선생님께 사람을 보내 자세한 보고를 하고 지주교님과의 약속을 알렸으며, 국내 국외 세력과의 광활한 전선의 그물짜기, 지주교님의 '슬라이딩 태클', 가톨릭의 전면적 반격을 조직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배 형님을 통해 리선생과 이종찬 선배에게도 그와 비슷한 사정을 알렸다. 나는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할 다른 일을 하면서 조영래 아우 등을 통해 조율해 나가다 적절한 때 붙잡히면 붙잡히는 대로, 안 붙잡히면 안 붙잡히는 대로 응전하려 했다. 우선 나는 아내에게 "잘 참아 달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만 말하고 헤어진 뒤 서울 안에서 주거 이동을 단행했다. 순식간에 자취없이!

모래내였다. 내가 옮겨간 거점은 그 무렵만 해도 훤언한 벌판이 많았던 미개발지역 모래내였다. 그 모래내 거리에서 어느 구멍가게 문짝에 나붙은 이철·유인태·강구철 등의 현상 포스터를 본 것은 그 직후였다. 틀림없이 나도 수배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갈 것이다. 일단은 됐다!

박정희의 코

죽음을 선택해 죽음을 이겨낸 촛불 신비의 고행 1974년.

그 방들 속에서의 매 순간 순간들은 한 마디로 죽음이었다. 죽음과의 대면! 죽음과의 싸움! 그것을 이겨 끝끝내 투사의 내적 자유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굴복하여 수치에 덮여 덧없이 스러져 가느냐? 1974년은 한 마디로 죽음이었고 우리들 사건 전체의 이름은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죽음을 이겨내는 촛불 신비의 고행,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다.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면서 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전 등에 박정희가 나타나 한 말씀 거룩하게 지껄였다.

"학원 주변에 고의적인 장기 학적 보유자들이 배회하며 직업적 학생운동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공산주의자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 코를 가리키면서, "내 코는 못 속인다. 나는 냄새를 맡고 있다. 직업적 혁명가들이 배후에 있다. 이 자들을 소탕해야겠다."

나는 박정희의 코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츠루미, 즉 일본 쿄토(京都)대 철학교수요, 김지하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츠루미 순스케(鶴見俊輔) 선생이 내게 선물한 두 권의 책 『전향(轉向)』에서 그 '전향의 안테나'를 본 것이다. 박정희의 코는 그가 과거 친일파였다가 거기에서 전향했고, 좌익이었다가 거기에서 또 전향한 뒤로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컴플렉스를 지닌 채 좌익을 때려잡는 정보업무의 참모장을 지내면서 더욱 예민해진 사정을 압축한다.

그 코에 붙잡힌 존재가 바로 나였다.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나는 지하조직에 속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혁명을 하려는 골수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며, 마르크스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민족주의나 가톨릭 · 불교 · 동학 · 신좌익 등으로 혼합된 아직은 구도(求道) 중의 방황하는 시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질긴 행동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정열 때문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코는 바로 나의 냄새, 즉 '적극성'의 냄새를 맡았고, 그 전향의 안테나는 나를 전향시키는 쪽으로 움직였다. 전혀 뜻밖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사회주의 · 공산주의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그것의 대안을 찾고 있던 나에게는 하나의 정보이지 사형선고도 전향의 메시지도 아무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20여년 전 '김지하가 전향했다'고 소문이 돌았다는데 그 말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그 뒤 나를 향한 극좌들의 비난 역시 오해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지독한 빨갱이로 우상화시킨 결과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위험을 느꼈으며,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이 운동의 대성공, 한국현대사에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주체들의 탄생으로 이어지리라는 예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무척 견디기 힘들고 피곤했다. 그 무렵 문득 환청처럼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목숨
이리 긴 것을
가도가도 끝없는 것을 내 몰라
흘러 흘러서
예까지 왔나 에헤라
철길에 누워
철길에 누워

한없이 머릿속으로 얼굴들이 흐르네
막막한 귓속으로 애울음소리 가득차 흘러
내 애기
피속으로 넋속으로 눈물 속으로 퍼지다가
문득 가위소리에 놀라
몸을 떠는 모래내
철길에 누워

한번은 끊어버리랴
이리 긴 목숨 끊어 에헤라 기어이 끊어
어허 내 못한다 모래내
차디찬 하늘

흘러와 다시는 내 못가누나 어허
내 못돌아가 에헤라
별빛 시린 교외선
철길에 누워
철길에 누워

「모래내」라는 시다. 충격은 난데없는 애기 울음소리로부터 왔다. 술 때문이었을까. 잠은 오지 않고 내내 울음소리의 기억에 시달렸다. 아내가 걱정되었던 것이다.

나는 전화를 걸어 김수환 추기경님과 시간약속을 하고, 밤에 서울교구청을 조심조심 찾아가 만나 뵈었다. 내 부탁은 내 아내를 추기경님 보호 아래 성모병원에 입원시키고 추기경님께서 좀 돌봐 달라는 것이었다. 추기경님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셨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나는

또 그곳을 떠나 조심조심 모래내로 돌아왔다.

모래내

모래내는 영화판의 내 친구 고 김원두의 집이었다. 나는 원두와 한 방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며 옆방에서 눈먼 그의 동생 고 김윤두가 부는 하모니카 소리나 그 애가 켜는 기타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원두의 처가 윤두를 마치 자기 애인이나 되는 듯이 거두고 돌봐주는 정경이었다. 원두의 처는 그 얼굴 모습마저 윤두를 닮아가고 있었다. 조금 병적이었다.

연민!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연민은 시도 때도 없었다. 한밤중이건 꼭두새벽이건 윤두가 나직이 발음하는 '형수' 한마디에 벌떡 깨어 일어나 윤두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원두도 이상했다. 원두는 그러는 두 사람 모두를 때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민했다. 그리고 원두의 딸아이. 그 아이도 조금은 병적이었다. 엄마와 삼촌을 똑같이 불쌍해 했으니까. 나는 이상한 그 집 분위기에 질려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했다.

마침 기회가 왔다. 고 이만희(李晩熙) 감독이 수십 명의 뒷 스태프를, 그리고 문정숙(文貞淑)·남궁원(南宮遠) 두 스타와 젊은 남녀 주인공 배우 등을 데리고 전남 흑산의 홍도로 야외촬영을 떠나는데, 거기 원두와 내가 조연출로 붙어 가기로 결정된 것이었다.

영화 〈청녀(靑女)〉의 전원이 먼저 목포로 떠나고 이감독과 원두와 나 세 사람은 그 뒤를 따라 기차로 목포까지 가는 길이었다. 기차에서 셋이 술을 마시고 마구 떠들어대며 거의 세 편의 시나리오를 말로 완성했다. 그 중 한 가지 시나리오의 몇 신이 기억에 남는다.

겨울의 설악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경찰에 쫓긴 주인공이 달아

나다 얼어붙은 폭포 앞에 문득 막혀 서서 이를 깨물며 가지고 있던 소총으로 폭포를 터뜨리는 장면이다. 폭포가 터지면서 천지사방에 물덩어리들이 덮칠 때 그 파노라마 속에 묻혀 흩어지며 경찰과 함께 와 있던 제 애인을 향해 열쇠와 같은 마지막 한마디.

"그 집은 빈 집이었어. 토방에 식칼 하나만 떨어져 있고는 텅빈 빈 집이었어. 빈 집이었어…."

에코, 에코. 그리고는 빙긋 미소 한번. 내설악 산장의 실제 인물인 한 산쟁이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그때 이감독과 원두는 나에게 운동이니 뭐니 그만두고 함께 영화를 하자고 청했고, 바로 그것은 내가 내심 바라던 바였다. 나는 그때 영화판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일하면서 조영래 아우와 원주 장선생과만 연락하며 배후에서 일하다 어떤 단계에서 붙잡히면 그런대로 대응하고 안 붙잡히면 또 그대로 새 차원에서 응전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첫번째의 경우 필요하다면 내가 스스로 나아가 구속될 수도 있음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좌우간 그때의 수배 정도로는 첫 단계로서 만족스럽지 못했고 민청학련의 전 조직이 가동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뒤 얼마 안돼 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人革黨) 조직이 있는 것같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나는 나의 조기 복귀와 조기 구속이 불가피하고, 헌병사령부나 보안사령부 등에 의한 초기단계의 살벌함만 잠깐 지나서는 구속되어서 선(線)을 바로 세워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홍 도

목포의 사촌누이 집에 들렸던 게 화근이었다. 아니, 화근이라기보다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니 반쯤은 이미 화를 자초한 셈이었다. 마

음 약한 매형이 혹시 자기 가족에게 화가 미칠까 걱정해서 일찌감치 경찰에 신고해 버린 것이다. 우리가 대흑산(大黑山)에 묵지 않고 바로 홍도(紅島)로 직행한 때였다.

산더미 같은 물결들을 헤치며 큰 바다를 질러갔다. 홍도의 흰 동백숲이 첫 목표였기 때문이다. 흰 동백숲은 꽃들이 이제 막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노을녘에 검은 돌무더기들과 축축한 검은 흙 위에 떨어져 누운 흰 동백들은 마치 불행한 한 여인의 갖가지 표정의 얼굴들 같고, 또 흰 미륵 부처들같기도 했다. 그리고 기일게, 길게 울리는 뱃고동에 몸을 뒤척이는 한 청년의 갖가지 정감의 상징들 같았다. 노을녘 그 숲속에서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시(詩) 한 토막이 문득 떠올랐다.

꽃지는 사월
동백숲 외딴 돌무더기에
너를 묻고 떠난다
길었던 기다림
짧았던 만남

그날 밤 원두는 이 토막 시에 곡을 붙여 기타를 동당거리기 시작했고, 눈먼 여주인공 역을 하던 '하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배우는 너무 슬프다고 조용히 눈물바람을 했다.

영화 〈청녀〉는 앙드레 지드의 소설 「전원교향악」을 번안·각색한 것이다. 어렸을 적 데려다 기른 눈먼 소녀를 부자가 함께 사랑한다는 삼각 드라마였다. 홍도 뒤편 절벽 위에서 사그라드는 노을 무렵에 먼곳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집 아들을 기다리는 눈먼 소녀의 슬픔을 그린 그 이튿날 밤, 달도 별도 없는 그 새카만 밤, 술을 사러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나는 짐승을 잡기 위해 땅을 파놓고 그 위에 살짝 나뭇가

지와 가마니를 덮어놓은 깊은 구덩이에 푹 빠져 버렸다.

캄캄했다. 그리고 암담했다. 도무지 혼자서는 기어나올 수 없어 원두를 부르기 시작했다. 꼭 짐승같았다. 구덩이에 빠지고 덫에 걸린 산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울부짖음! 원두를 부르는 나의 외침은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나를 아랫목에 눕히고 무릎과 팔꿈치 등에 머큐로크롬을 발라 주던 원두가 큰 눈을 껌벅이며 왈, "너 여기 안 왔으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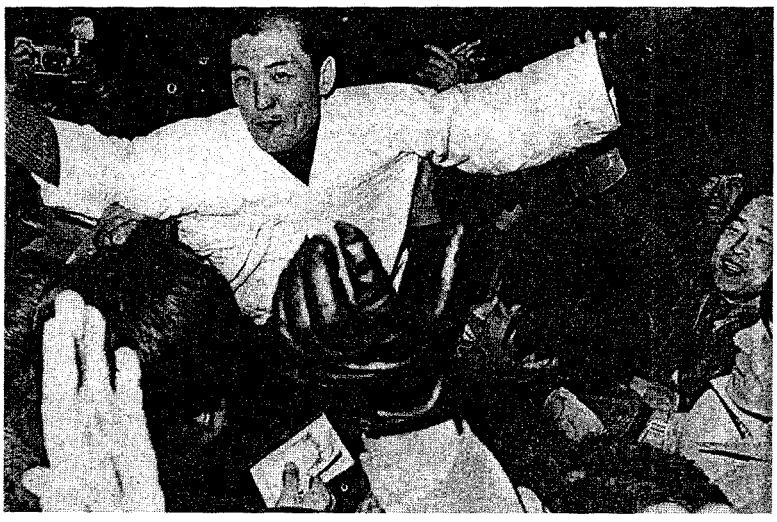
촬영이 끝나고 홍도를 떠날 때다. 대흑산 예리에서 그 이튿날 목포로 떠나는 배에 대려고 밤에 홍도를 떠나는데 홰들을 잡고 미끄러운 돌짝지에서 작은 배로 옮겨타려고 펄쩍 뛰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앞으로 확 고꾸라져 노를 거는 쇠붙이 위에 가슴을 몹시 찧었다. 끙끙 앓으면서 뱃전에 누워 있는 나에게 횃불이 번뜩번뜩 스쳐 지나는 두 눈을 껌뻑이며 원두가 또 가라사대, "너 여기 안 왔으면 죽었다."

그래. 아마도 헌병대나 보안사에 처음 걸려들었으면 고문에 맞아 죽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고비를 넘겼으니 이젠 잡혀가도 된다는 것일까.

그날 밤 대흑산 예리 관광여관의 큰 방에 모여앉아 노래들을 부르고 노는데 엉망으로 취한 내가 배우 남궁원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한다. 얼마나 심하게 시비가 붙었는가 하니 내가 남씨더러, "야 이 똥배우! 그렇게 연기할 바에는 차라리 배우 관둬! 배우라는 게 신비스러운 데가 있어야지, 넌 뭐야, 임마! 그게 얼굴이야? 떡판이지!"

남궁원씨가 독한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고 나는 귀퉁이 방에 가서 고꾸라졌는데, 술에 몹시 취한 남궁원씨가 악을 악을 쓰며 나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 문정숙씨와 이감독이 말려 겨우 안정시켰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나를 내려다보던 원두가 또 그 큰 두 눈을



1975년 2월 15일 감옥 문을 나서는 김지하 시인

껌벅이며 왈, "너 정말 여기 안 왔으면 죽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열리고 웬 사내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실례합니다. 김지하 시인이지요?"

그는 흑산경찰서의 민경사였다.

마침내 배가 떠났다. 나는 배 맨 위층에 있는 선장실 쇠창살에 수갑을 나눠 한 손목에 걸고 민경사와 함께 목포까지 그 먼 바다를 내내 술을 마시면서 왔다. 그 선장실에서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차츰 잦아지면서 심한 기침이, 오래전 가라앉았던 그 천식이 시작되었다.

혼자 웃었다. 속으로 지껄였다.

'제기랄! 내가 무슨 체 게바라야, 뭐야? 웃기네!'

그렇게 나는 내 운명을 웃으면서 왔다. 비극도 희극도 아니었다. 멀리 검은 유달산의 바위 끝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야말로 나의 운명이자 숙명이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용납된다면 나의 천명이기도 했다.

훗날 들으니 바다 위에서 아래쪽 객실에서는 원두가 술에 취해 남궁원씨에게 마구 퍼부어 대며 경찰에 밀고했다고 욕을 욕을…. 아! 그러는 게 아닌데…. 전혀 허물없는 사람이 욕을 봤구나.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부두에서

배가 부두에 닿고, 내리기 위해 수갑을 차고 갑판으로 나오니 이감독이 브리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에 꾸벅 절하며, "형님,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던 문정숙씨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꼭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 무렵의 그 흔한 독립운동 영화에서 일제에 끌려가는 투사에 대한 한 여인의 전별의 신 같았다. 배우는 역시 배우였다. 아주 숙연한 분위기였으니까. 원두와 제작진 및 아는 스태프들과 작별하고 부두로 올라서는데, 그곳에 몰려섰던 군중들 속에서 여러 소리가 쏟아졌다.

"옴메, 못 보던 얼굴인디…."

"신인배우랑게! 신인이여!"

"먼 배우가 저렇게 꾀죄죄하다냐?"

"독립투사여! 독립투사!"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잘난 체하고 미소를 보낼 수도, 그렇다고 잘못한 체하고 고개를 숙일 수도 없었다. 어물쩡해서 속히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를 타고 목포경찰서로 향했다.

떠오르기 시작한 아버지의 영상! 그리고 그 숱한 민중들의 이미지! 아, 나는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웅주의는 아닌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기침, 끊임없이 기침이 터져나왔다.

목포서 정보과장은 흐뭇이 웃으며, "귀향을 축하합니다. 그 수갑 좀 얼른 끌르랑게!"

가까스로 미소짓는 나에게, "어디 잘 아시는 음식점 있는가요? 우리가 밥 한끼는 대접해야 예의인께잉."

"상해식당 자장면이오."

정보과장은 또 흐뭇이 웃으며, "입맛은 변함없지라우, 잉."

그렇게 심한 기침 속에서 자장면 한 그릇을 마저 다 못먹고 출발하여 그 무렵에 운행되기 시작한 고속버스를 탔다. 호송하는 두 사람의 경관은 권총을 찼고 내 손의 수갑은 소매 속으로 감추어졌다. 그 경관이 호의를 베풀어 서비스했다. 고향의 인사였다.

그날 신문이었다. 신문에는 수십 명의 민청 지도부와 인혁당 관계자들의 얼굴이 계보를 만들어 나와 있었다. 그중에 얼른 눈에 띄는 게 조영래 아우의 얼굴이었다. 아아! 만사 다 끝났다!

그 순간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깊고 깊은 지옥의 잠! 눈을 떴을 때는 서울이었다. 나는 그날로 정보부 6국으로 들어갔다.

제6국

1975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지상의 글 '고행(苦行) … 1974,' 그러니까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사형선고, 무기감형되었다 10여 개월만에 석방된 직후 기고한 이 글은 제 6국에서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보부 6국의 저 기이한 빛깔의 방들, 악몽에서 막 깨어나 눈부신 흰 벽을 바라봤을 때의 그 기이한 느낌을 언제나 느끼고 있도록 만드는 저 음산하고 무뚝뚝한 빛깔의 방들. 그 어떤 감미로운 추억도, 빛 밝은

희망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빛깔의 방들. 아득한 옛날 잔혹한 고문에 의해 입을 벌리고 죽은 메마른 시체가 그대로 벽에 걸린 채 수백 년을 부패해가고 있는 듯한 환각을 일으켜 주는 그 소름끼치는 빛깔의 방들. 낮인지 밤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언제나 흐린 전등이 켜져 있는, 똑같은 크기로 된, 아무 장식도 없는 그 네모난 방들. 그 방들 속에 갇힌 채 우리는 열흘, 보름 그리고 한 달 동안을 내내 매순간 순간마다 끝없이 몸부림치며 생사를 결단하고 있었다.

못 돌아가리
한번 딛어 여기 잠들면
육신 깊이 내린 잠
저 잠의 하얀 방 저 밑모를 어지러움

못 돌아가리
일어섰다도
벽 위의 붉은 피 옛 비명들처럼
소스라쳐 소스라쳐 일어섰다도 한번
잠들고 나면 끝끝내
아아 거친 길
나그네로 두 번 다시는

굽 높은 발자욱 소리 밤새워
천장 위를 거니는 곳
보이지 않는 얼굴들 손들 몸짓들
소리쳐 웃어대는 저 방
저 하얀 방 저 밑모를 어지러움

뽑혀 나가는 손톱의 아픔으로 눈을 흡뜨고
찢어지는 살덩이로나 외쳐 행여는
여윈 넋 홀로 살아
길 위에 설까

덧없이
덧없이 스러져 간 벗들
잠들어 수치에 덮여 잠들어서 덧없이
매질 아래 발길 아래 비웃음 아래 덧없이
스러져 간 벗들
한때는 미소짓던
한때는 울부짖던
좋았던 벗들

아아 못 돌아가리 못 돌아가리
저 방에 잠이 들면
시퍼렇게 시퍼렇게
미쳐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시는
바람부는 거친 길
내 형제와
나그네로 두 번 다시는.

「불귀(不歸)」라는 시다.

그 방들 속에서의 매순간 순간들은 한마디로 죽음이었다. 죽음과의 대면! 죽음과의 싸움! 그것을 이겨 끝끝내 투사의 내적 자유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굴복하여 수치에 덮여 덧없이 스러져 가느냐? 1974년은

한마디로 죽음이었고 우리들 사건 전체의 이름은 이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죽음을 이겨내는 촛불 신비의 고행,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다. 이 죽음의 방, 이 죽음과의 대면의 방속에서 나는 내 아들의 탄생을 알았다. 아아, 신이여! 당신의 뜻을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잠을 재우지 않는 그 흰빛 방에서, 끝없는 기침 속에서 침묵, 거부, 침묵, 거부의 닷새가 지난 뒤 나병식이 조영래로부터 돈 받은 것을 고백한 것과 조영래가 체포되지 않은 것을 드디어 알아채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민청학련의 상부선인 이철 · 유인태에게 2천여원의 교통비를 준 대구 경북대학교 정심회(正心會)의 여정남(呂正男)이요, 여정남은 하재완(河在玩) 등 인혁당의 한 멤버로 민청학련의 진보세력이 반국가단체인 인혁당인 것으로 조작되고 있음을 닷새만에 알아채고, 엿새째 되는 날 새벽부터 나는 상부의 지학순 주교로부터 받은 120만원을 유신철폐를 목적으로 한 시위자금으로 받아 하부의 조영래에게 전달했고, 그 자금은 조영래로부터 삼민(三民) 테제와 함께 민청학련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취조를 시작했을 때의 「민중의 소리」 집필 여부 따위는 다 날아가 버렸다.

수사 전체가 뒤집혔다. 나는 온몸의 감각으로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다. 6국장 이용택(李龍澤)은 취조관을 통해 지주교의 자금 액수를 삭감하자고 제의해 왔다. 나는 코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사건과 진실을 빼고 나면 당신들이 나를 괴롭힐 이유, 내가 당신들에게 조사받을 까닭이 하등 없다고 대답했다. 세 차례나 그 일은 반복되었다. 심지어 지주교에게 신세지면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따위의 너절한 타령까지 나왔다.

그러나 나는 못을 딱 박아버리고 말았다. 당신들 정 이러면 변호

사를 통해 돈 깎자고 흥정한 내역을 모조리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드디어 상부선, 주도선이 바뀌었다. 120만원의 지주교가 주도선이고, 30여만원의 윤보선 전 대통령과 박형규 목사님이 부주도선(副主導線)으로, 인혁당은 중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소한도의 통일전선 구축 협의조차 성립시키지 못한 6국의 완전 실패작이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복수는 인혁당에게 행해졌고, 이것이 가슴 아파 나는 다시금 글을 쓰고 입을 열다 재구속되어 7년을 장기 수형(受刑)하게 된다.

나는 잠을 잘 수 있었고, 곁에 배석한 헌병의 군홧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끊임없는 기침, 기침 속에서 내 첫아들 원보(圓普)의 탄생도 알았다. 나는 내가 왜 죽음을 각오했는지 그 이상한 까닭을 알 듯했다. 그것은 죽어갈 때가 되면 유난히 큰 솔방울을 내미는 소나무의 비밀이었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신비였다. 생명! 그러나 아직은 생명의 뜻을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슬라이딩 태클

구치소로 넘어갔다. 구치소 안으로 비밀 전갈이 들어왔다. 지주교님이 입국, 공항에서 연행되었다가 박정희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며칠 후 200여 명의 원주교구 청년신도들과 함께 상경하여 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병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하셨다고. 그 내용은 유신 철폐를 위한 학생시위 자금으로 김지하에게 120여 만원을 준 것이 사실이며, 자신은 유신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해 버리셨다고. 그 길로 정보부를 거쳐 서대문구치소로 입감되셨다고.

됐다! 그러나 주교님께는 죄송한 마음이었다. 가까운 교도관들을 통해 그날 밤부터 시작하여 나는 이른바 '슬라이딩 태클' 전술을 전 구치소 전 사방에 속속들이 알리도록 신신당부했다.

혐의 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조직 관계를 모두 다 불어버려라. 현정부의 파렴치성과 10월유신의 반민주성을 당당히 고발하며 접촉 범위를 최대한 확대진술함으로써 피해 범위를 거듭 확대하라! 피해자들은 이후 전원이 반유신 활동가로 변모할 것인즉 인간적 죄스러움을 떨쳐버려라! 등이다.

지금도 가끔 회고하며 쓴웃음을 짓는 것은 몇몇 아우들의 고답적 태도다.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만 지속하는 아우들의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무병법(無兵法) 상태'가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

반대로 다른 그 어떤 역할과 공헌을 다 제쳐놓고도 바로 이 슬라이딩 태클을 파문처럼 순식간에 전역에 확산시킨 민청학련 사건 최대의 공로자를 잊을 수 없다. 아마도 지금쯤은 도리어 이것을 밝히는 쪽이 본인에게 예의가 될 것 같다.

전병용. 이 사람, 이 사람의 용기와 헌신, 희생을 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이의 미래에 밝은 빛이 쏟아지기를!

그 결과 소환, 연행, 구금, 피해의 범위가 수천 명에 달하고 단 한 대의 뺨이라도 맞았던 사람은 실제에 있어 모두 반유신(反維新) 분자로 변모하여 민청학련사건을 분기점으로 국내의 반유신투쟁이 대중운동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효력있는 전선을 결성하게 되었으니 훗날의 민주회복국민회의 등은 다 이같은 대중성과 전선당적 성격을 반영한 것들이었다.

그 모든 전변(轉變)이 민청학련 전술의 '슬라이딩 태클'에서 비롯되었고, 박정희는 확실하게 패배를 인정했으니 이미 기왕에 선포한 유

신헌법을 다시금 조작적 국민투표에 부치는 코미디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수동성(passive)에 빠져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솔라 페시브'(solar passive)였으니 햇빛의 이동에 따라 대세의 방향을 따라 기획하는 것. 바로 이미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고 있었으니 꼭 나와 우리의 공로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하튼 두 사람의 공로는 막대했으니 어찌하랴! 이로 인해 우리의 보석인 지주교님이 당뇨를 얻으시어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의 진주였던 조영래 아우가 장장 7년간의 피신생활로 고초를 당하게 되었으니 오늘날에 와 되돌아보건대 그 또한 다름 아닌, '헛되고 헛되고 또한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통감한다.

슬라이딩 태클! 그러나 그 지렛목인 지학순 주교님과 조영래 아우가 없었다면 그 전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솔라 페시브! 그렇다. 이 역시 겸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인혁당

1975년 2월 「동아일보」에 발표된 '고행… 1974'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어둠속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건너편 옥사 철창 너머에 녹슨
시뻘건 어둠
어둠속에 웅크린 부릅뜬 두 눈
아 저 침묵이 부른다
가래끓는 숨소리가 나를 부른다

잿빛 하늘 나직이 비 뿌리는 날
지붕위 비둘기 울음에 몇번이고 끊기며
몇번이고 몇번이고
열쇠소리 나팔소리 발자국소리에 끊기며
끝없이 부른다
철창에 걸린 피묻은
낡은 속옷이, 숱한 밤 지하실의
몸부림치던 하얀 넋
찢어진 육신의 모든 외침이

고개를 저어
아아 고개를 저어
저 잔잔한 침묵이 나를 부른다
내 피를 부른다
거절하라고
잿빛하늘 나직이 비 뿌리는 날
저 시뻘건 시뻘건 육신의 어둠속에서
부릅뜬 저 두 눈이.

잿빛 하늘 나직이 비 뿌리는 어느 날 누군가 가래끓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나는 뺑끼통(감방 속의 변소)으로 들어가 창에 붙어서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큰소리로 물었죠. 목소리는 대답하더군요.

"하재완입니더."

"하재완이 누굽니까" 하고 나는 물었죠.

"인혁당입니더" 하고 목소리는 대답하더군요.

"아항, 그래요!"

4상(四上) 15방에 있던 나와 4하 17방에 있던 하재완씨 사이의 '통방'(通房 : 재소자들이 창을 통해 서로 큰소리로 교도관 몰래 대화하는 짓)이 시작되었죠. "인혁당 그것 진짜입니까" 하고 나는 물었죠. "물론 가짜입니더" 하고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왜 거기 갇혀 계슈" 하고 나는 물었죠. "고문 때문이지러" 하고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죠. "말 마이소! 창자가 다 빠져나와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입니더" 하고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저런 쯧쯧" 하고 내가 혀를 차는데, "즈그들도 나보고 정치문제니께로 쬐끔만 참아 달라고 합디더" 하고 하씨는 덧붙이더군요.

"아항, 그래요!"

그 뒤 7월 언젠가 '진찰'(구치소 내의 의무과 의사가 재소자들을 감방에서 꺼내어 줄줄이 관구실 앞에 앉혀놓고 진찰하는 일과) 받으러 나가 차례를 기다리며 쭈그리고 앉았는데, 근처 딴 줄에 앉아 있던 키가 작고 양 다리 사이가 벌어지고, 약간 고수머리에 얼굴에 칼자국이나 있고, 왕년에 주먹깨나 썼을 것같은 사람이 나를 툭 치며 "김지하씨지예" 하고 묻더군요. "그렇소만 댁은 뉘시유" 하고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지가 하재완입니더" 하고 오른 손 엄지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아항,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잠깐 만난 실물 하재완씨는 지난번 통방 때와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교도관 눈치 열심히 보아가며 낮고 빠른 소리로 내게 말해주더군요.

마치 지옥에서 백년지기를 만난 듯 내 어깨를 꽉 끌어안고. 그러나 내 귀에는 마치 한이 맺힌 귀곡성(鬼哭聲)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그 가래 끓는 숨소리와 함께 열심히, 열심히.

또 그 무렵 어느날인가 출정하다 한 사람이 나에게 "김지하씨지요" 하고 묻더군요. "네, 그렇습니다만…" 하고 대답하자 "나 이수병이오" 하고 말합디다.

"아하, 그 「만적론」을 쓰신 이수병 씨요?"

"네."

"어떻게 된 겁입니까."

"정말 창피하군요. 이거 아무 일도 나라 위해 해보지도 못한 채 이리 끌려들어와 슬기로운 학생운동 똥칠하는 데 어거지 부역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아항, 그래요!"

나는 법정에서 경북대학교 학생 이강철의 그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나는 인혁당의 '인'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잘 아는 것으로 시인하지 않는다고 검사 입회 하에 전기고문을 수 차례나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소위 인혁당이라는 것이 조작극이며 고문으로 이루어지는 저들의 전가비도(傳家秘刀)의 결과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뒤 어느날, 나는 감방 벽에 기대 앉았어요. 한없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끝없는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내 피를 부른다
거절하라고
그 어떤 거짓도 거절하라고.

거절하라고? 그래요. 거절이죠. 어둠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빛속에 드러내라고? 거짓을 거절하라고? 그래요. 횔덜린의 시에 있어서의 그 빛의 수수께끼. 그것은 바로 이 거절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군사재판

별들이 앉아 구형과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고행… 1974'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사형이 구형되었다. 내 뒷자리의 서경석이 한마디 했다.

"웃기네." 나도 웃었다. 김병곤의 최후진술이 시작되었다. 그 첫마디가, "영광입니다!" 아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영광입니다!'

사형을 구형받자마자 '영광입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엄청난 충격 속에 휘말려들기 시작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분명히 사형은 죽인다는 말이다. 죽인다는데, 죽는다는데, 목숨이 끝난다는데, 일체의 것이 종말이라는데, 꽃도 바람도 눈매 서글한 작은 연인도, 어여쁜 놀 가득히 타는 저 산마을의 푸르스름한 저녁 연기의 아름다움도, 늙으신 어머니의 주름살 많은 저 인자한 얼굴 모습도, 흙에 거칠어진 아버지의 저 마디 굵은 두 손의 훈훈함도, 일체가, 모든 것이 갑자기 자취없이 사라져 버린다는데, 그런데 '영광입니다.'

성자(聖者)의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자인가.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꼬는 말이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저들의 그 독살스러움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다만 집행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여유있게 비꼬고 있을 그런 처지인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우리는 드디어 죽음을 이긴 것이다.

그 지옥의 나날, 피투성이로 몸부림치며 순간순간을 내내 죽음과 싸워 드디어 그것의 공포를 이겨내 버린 것이다. 경석이 한 사람, 병곤

이 한 사람, 또 나 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긴 것이다. 이기고 나아가 그 죽음 위에 한없이 거룩한 성총의 봉인을 씌운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들, 이 집단의 영생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이 집단의 사슬에 묶인 가슴 속에서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하는 참된 삶의 저 휘황한 불꽃을 감격에 차서 바라보고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아니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다. 종교적인 천상의 예감이었다. 아니, 종교적인 것만도 아니다. 예술적인 감동의 극치이기도 하였다. 그렇다. 그 순간은 무어라고 차마 이름붙일 수조차 없는,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모든 고상한 것들이 통일되는 빛나는 절정이었다.

그때 어떤 이상한 영감에 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일어났다. 그리고 언뜻 단 한 마디,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어휘가 내 머리와, 이상스럽게도 그와 동시에 바로 내 가슴 속에 불에 달군 시뻘건 낙인처럼 아프게 아프게, 깊이 깊이 아로새겨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다. '정치적 상상력!' 탁월한 의미에서의 정치와 예술의 통일. 어줍잖은 절충이 전혀 아니다. 통일! 바로 그것이다.

나는 드디어 그처럼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혀온 나의 민중적 운동, 정치행동과 예술적 창조 사이의 저 미칠 것만 같던 간극을 일시에 극복해 버리고 만 것이다. 숙제 해결의 결정적 해답을 선사받은 것이다. 엄청난, 엄청난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이 '영광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 다시 생각해 보면 과장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상력'은 새로운 문화와 상상력(유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정치(도덕)와 경제(자연)를 찾아야 하는 전 인류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정치적 상상력! 이미 그것은 68혁명 때, 또는 마르코스의 멕시코 농민혁명을 통해서마저 신선한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알 수 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이 찾아 헤매야 하는 것 아닐까? '호혜시장'이라는 신사나 '전원일치제 민주주의'라는 화백 안에 그 새로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통 방

감방의 뒤편 변기 바깥쪽 창문으로 다른 감방의 벗들과 소통하는 것이 통방이다. 감방에서의 유일한 낙은 면회, 즉 접견과 통방일 터이다.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았을 때 왼쪽으로 한 방 건너 지금은 목사님이 된 서울대 법대의 김경남 아우, 그 곁에 기독교사회운동의 맹장 황인성 아우, 오른쪽으로 한 방 건너 한때 지하철노조위원장을 하다 지금은 녹색교통을 시작한 정윤광 아우, 그 곁에 지금 국회의원인 장영달 아우, 아래층 왼쪽으로 두 방 건너 지금 「조선일보」 주필인 유근일 선배, 오른쪽으로 두 방 건너 인혁당 하재완 씨 등이 살고 있어 좋은 통방 이웃을 이루었으니 매일같이 통방, 통방, 통방이었다.

혹간 가다 구치소 간부에게라도 걸리면 다시는 안하겠다고 약속한 뒤 돌아서자마자 그 일을 가지고 또 통방! 그렇다. 통방으로 해가 떠서 통방으로 해가 지는 통방 징역이었다. 통방! 그것은 유신 시절의 매스컴이었던 '유비통신'(流蜚通信 : 유언비어를 그렇게 불렀다)처럼 우리의 '서대문통신'이었다. 각자의 집안 소식, 친구 소식에서부터 정세분석과 철학강좌까지 별의별 섹션이 다 갖추어진 거의 완벽한 매스컴이었으니 누가 이것을 녹음이라도 했다가 풀어 CD로 내거나 출판했다면 틀림없는 떼돈감이었다.

그러나 그 통방도 사형을 선고받자마자 그날로 잡범들과 합방시켜

버려 자취를 감췄다. 1.75평의 좁은 공간, 더운 초여름 날씨에 8명씩 들어앉아 있자니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는 성 싶었다.

내 생전 '생태학적 필요공간'이라는 말을 처음 실감했을 때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전선줄에 늘어앉은 참새와 참새 사이보다 더 좁아서 맨살이라도 살짝 닿는 날이면 "개새끼! 소새끼!" 하며 말싸움이 벌어지기 일쑤고, 서로 눈길이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씹할 놈아! 뼉할 놈아!" 하고 대판 주먹질이 오가기 십상이었다.

나는 어엿한 감방장으로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책임을 져야 했다. 참으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다 하도 안 풀려 천하태평의 도를 공모했다. 세 사람 입에서 한 마디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강아지!'

그렇다. 강아지만이 태평의 도였다. 강아지란 담배의 은어다. 나는 그날로 청소 담당 기결수와 담배 거래를 시작했다. 내 영치금에서 그 값을 빼내가는 순 왕도둑 장사, 엄청나게 비싼 장사였다. 그러나 강아지가 한 모금씩 돌고 나면 8명의 나팔들이 일시에 빙긋이 미소지으며 눈을 게슴츠레하니 뜨고 일대 평화와 정적의 낙원으로 들어갔던 것이니, 범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강아지 거래를 끊을 수 없었다.

그러다 한번은 간부에게 걸려 보안과까지 가서 시말서를 썼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계속되었으니 아아! 평화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 체호프의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를 압도하는 「담배의 미덕에 관하여」를 언젠가는 집필하리라는 꿈마저 꿀 정도였다.

그러는 중에도 외부에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부영(李富榮) 형을 중심으로 자유실천선언을 하여 사내에 상주하는 정보부원을 내쫓는 데 힘을 모으고, 신문 편집에 관한 간섭을 배제하는 등 자유언론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다른 신문에까지 번질 기세요, 야당이 국회에서 한판 떠들썩하게 벌이는 등 정국의 조짐이 심상치 않았고, 그 무엇보다 가톨릭이 지속적으로

구국미사를 올리며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라는 암흑 속의 횃불이 타오르는 등 그야말로 야단법석, 기독교와 일반 지식인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거 궐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과 미국 여론의 악화였으니, 미국 의회는 사형 등 중형과 반민주 행태에 항의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논의에까지 반(反)박정희 바람이 불어대고, 일본에서는 좌익과 중도계는 물론 우익단체까지 반박(反朴) 운동을 서슴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정세가 반복되었고, 유학생들의 반박 활동은 유명한 것이었다.

거기에다 8·15 기념식 때는 재일교포 문세광(文世光)이 박정희를 저격하다 실패하고 부인 육영수 여사만 죽었다. 온 나라가 장례를 치르느라 시끄러웠다. 박정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이럴 때를 일러 수즉부족(守則不足), 공즉유여(攻則有餘) 하는 것이니 우리가 되레 공세를 틀어쥐게 된 것이다.

나는 느긋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지주교님의 영상이 떠올라 괴로워하기도 했다. 한번은 복도에서 뵈었는데 '푸른옷'을 입고, 양 손 열 손가락에 검은 칠을 한 채 지장, 즉 '피아노'를 치고 계셨다.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주교님은 싱긋 웃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푸른옷을 입은 사제의 모습을 보았다. 뒷날 함세웅(咸世雄) 신부님과 문정현(文正鉉) 신부님을 푸른옷의 모습으로 뵌 적이 있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제의 모습은 죄인의 수의를 입은 성직자의 고통받는 그것일 듯 짜릿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다.

우리는 한 번 단식 파동을 겪은 적이 있으나 나는 만류하였으니,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답게 고요할 것, 겸손할 것, 그리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징역 살러 갈 것. 불과 몇 개월 안에 상황은 끝날 것이라는 연락을 몇 군데 보내며 곁으로 전하라고 일렀다. 불과 1주일만에 인

혁당 외에는 사형은 무기로, 무기는 20년 등으로 감형되었고, 우리는 곧 집단적인 항소 포기를 하였으며, 이어 형이 확정되자 이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기징역에 영등포감옥으로 이감이 확정되어 한 날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는 김동길 교수님과 같은 호송차를 탔다.

징 역

영등포교도소에서 나의 무기징역이 시작되었다. 머리를 박박 깎았고 맨처음 먹방에 배방되었다. 먹방이란 글자 그대로 새카만 방이니 밥그릇 들어오는 식구통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0.78평의 폐쇄된 방, 징벌방이었다.

왜 징벌방인 먹방에 집어넣었을까. 의문이 앞섰으나 나는 일체의 권익투쟁을 포기하기로 했다. 바로 옆방에는 박형규 목사님이 계셨다. 아항! 가장 미움받는 두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 나도 목사님도 아무 말 안했다. 온종일 식구통만 바라보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식구통만은 늘 열려 있어서 새카만 속에 네모난 하얀 외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무렵, 하루는 문득 '우주에로 뻗어가는 외줄기 하얀 길, 나의 운명'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10여년 전 4월혁명 직후 한밤중 수원 농대 앞길에서 체험한 그 끝없는 흰 길의 환영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 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직결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후 천주교 교리방(敎理房)에서 자고 제본공장에서 징역을 살 때 그 흔해빠진 종이로 스스로 만든 수첩에 그 환영을 그대로 써놓은 것, 나중에 문제가 되어 7년간 수형생활을 하게 만든 두 권의 수첩 속에 바로

그 흰 길의 운명이 그대로 있다. 뒷날 서대문감옥에서 참선하던 중에도 보았고, 또 훗날 그 훗날에 '흰 그늘'의 체험에서도 되풀이된 이상한 환상이었다.

나머지 일들은 모두 그렇고 그렇다. 다만 교리방에서 잘 때 내 바로 곁에 김원영이라는 독특한 아이가 나를 형님! 형님! 하고 따랐다.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범이었다. 나를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우울한, 그러나 가슴에 한이 깊은 주먹 출신이었다.

나는 그 무렵 처음으로 가족 접견이 허락되었다. 아내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말이 없는 대신 속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이 역력했다.

그러나, 아기! 우리 아기! 재판 때 잠든 모습을 한 번 보고 두번째가 바로 영등포감옥에서의 접견 때였다.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묘하다'였다. 물론 어느 애비치고 첫아들을 특별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없겠으나 이 아이는 특별하게 생긴 것 같았다. 허허허, 불출(不出)이 따로 없구먼!

생각해 보니 죽어가는 소나무에 솔방울이, 그것도 크고 덩실한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이치였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을까. 그럴지도 몰랐다. 아마 그때쯤, 그리고 조금 지나 국민투표를 할 때쯤, 민주회복국민회의가 태동할 무렵쯤은, 그리고 김재규 정보부장의 시해사건 직전에나 김대중씨 등을 포함한 총살 대상 1천여 명의 리스트까지 작성한 것 등 박정희가 나를 죽일 생각을 한 자취가 분명한 것을 보면…. 그럴지도 몰랐다.

좌우간 나는 상당히 평안한 마음으로 징역을 살았다. 죽은 듯이 고요하게…. 그때 영등포감옥에는 박형규 목사님, NCC 총무인 김동완 목사님, 미술사학자 유홍준 아우, 연세대 김학민 아우, 중국학자 백영서 아우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긴급조치 1호로 장준하 선생과 함께 구속된 백기완 선생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신헌법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으니 우리는 모두 석방이 머지않음을 알고 있었다. 매우 추운 어느 겨울날 밤, 우리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석 방

인혁당과 이현배 · 유인태 아우 등을 제외한 전원이 석방되었다. 영등포감옥 문앞에는 거의 모든 내외신이 집결했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가까운 문우들에 의해 나는 갑자기 공중으로 높이 헹가래쳐졌다. 그리고는 끝없는 끝없는 질문의 홍수.

"소감은?"

"느낌은?"

"얼굴이 수척하다. 갑자기 밖으로 나온 느낌은?"

"이제부터는?"

"현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신철폐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심한 고문을 당했는가."

"이번에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지금 심경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내가 한 대답은 두 세 가지밖에 생각 안난다.

"내가 미쳤든지 세월이 미쳤든지, 둘 다 미쳤든지 하여간 알 수 없다. 사형에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고 10개월만에 석방하는 것은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누구겠는가. 미친 쪽은…."

"이제부터 서서히 어둠 속에 갇혔던 잔혹한 사실들이 모두 터져나올 것이다. 그 터져나오는 순서에 따라 현정권도 서서히 붕괴해가기 시

작할 것이다. 서서히!"

김상현씨가 보였다. 김상현씨 및 내 가족과 함께 천주교 서울교구청으로 김추기경님께 인사갔다. 방에 들어서자 추기경께서 한 잔의 위스키를 주셨다. 그것을 마시니 머리 속과 온몸이 후끈하게 달아오르며 한결 개운해졌다.

나는 조금 들떠 있었다. 가라앉히지 않으면 실수할 것 같았다. 인사를 끝내고 재빨리 정릉에 있는 처가로 돌아갔다. 아내와 아기와 장모님과 아기의 고할매가 모두 잠들었다. 추운 겨울날 영등포감옥 앞에서 진종일 떨며 견뎠으니 지칠 만도 했다. 나는 전등 아래 오도카니 앉아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네 시. 통금 해제 사이렌이 불자 나는 일어나 아직도 캄캄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아득한 곳에서 먼동이 터오는, 그러나 아직은 밤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 윤배 형님. 돈암동까지 걸어나가 홍대앞 극동방송쪽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차에 앉아 스쳐가는 밤거리를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나는 옥문을 나온 작은, 피묻은 손가락이다. 그 길고 긴, 넋과 육신이 함께 해방되는 그날에의 기다림이 꾀많은 마귀의 간지(奸智)에 의해 장난질당하고, 그 장난 덕으로 옥문 밖에 내동댕이쳐진 잘린 손가락이다. 껍질이다. 넋 잃은 육신일 뿐이다. 내 넋, 그토록 일치된 내 넋은 어디에 있나?

밤거리에는 바람만 분다. 내 넋은 어디에 두고 와 이 빈 밤거리를 내 텅텅 빈 육신만이 바람에 불려다니나? 아아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나의 벗들, 장(腸)이 부서지고 빠져나간 채 어둠 속에 두 눈을 부릅뜨고 웅크리고 있는 그 가래끓는 목소리들, 나의 정다운 '도둑놈들.'

헤어질 때 울던 그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범. 나는 바로 그들이었

다. 그들이 바로 나였다. 그래! 그렇다. 내 넋은 그 감옥에 두고 왔다. 빈 껍질만이 왔다. 내 넋이 거기서 울고 있다. 통곡하며, 해방시켜 달라고, 다시금 다시금 일치되자고 통일되자고 미친 듯이 내 육신을 부르고 있다. 서로 만나자고 외치고 있다. 내 넋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바람찬 잿빛 거리에 텅 빈 내 육신만 홀로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가자! 내 넋을 찾으러 가자! 가서 옥문을 열고 내 넋을 해방시키자! 해방시켜 울며 부둥켜 안자! 일치하자! 일치하자! 통일하자! 통일하자! 내 넋을 만날 때까지 내 육신은 싸우리라. 그것이 매질 아래 산산조각나 흩어져 저 바람결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때까지.

「동아일보」의 '고행… 1974'의 마지막 부분이다.

사제단

새벽 부우옇게 동이 터올 무렵 극동방송 앞에 있는 댁에서 윤배 형님을 만났다. 정좌하고 앉은 형님 뒤편 벽에 기인 일본도가 한 자루 얹혀 있었다. 삼엄했다. 형님 눈과 생각에 비친 그간의 세상에 대해 알고 싶었다. 형님은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사제단이었다.

"거, 사제단 말이야! 거 참, 멋있어. 그러나 너무 유럽 냄새가 나! 조선 냄새가 날 수 없냐? 민족적 사제단 말이야. 그래야 통일 주체도 되지."

둘째는 원주였다.

"앞으로 리영희 선생이 원주 장선생을 만나러 자주 걸음할 텐데 양쪽 입장을 조율할 수 없냐? 국민회의의 실제적인 지도력을 형성할 수 없냐 이거야!"

셋째는 이종찬 선배의 군부였다.

"괜찮아! 믿고 잊어버려! 잊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워! 괜찮을 테니

두고보자고!"

그리고는 그밖에 가장 걱정되는 것을 말했다.

"너가 제일 걱정이다. 너를 굉장히 노릴 거야! 이제 너 자유롭지 못할 거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사제단부터 만나라. 그 뜻 알겠지?"

"네."

내 발은 명동성당의 아침미사를 목표로 가고 있었다. 눈부신 아침, 창으로 흘러드는 햇빛과 조명에 빛나는 새하얀 미사. 그 미사는 만원이었다. 입구쪽에서 뒷전에 서서 바라본 성당 내부는, 그리고 미사는 참으로 숭고하고 장엄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시커멓고 불길한 어떤 것이 거룩한 흰 자리 위에 서려 있음을 보았다. 충격이었다. 환영?

사제단과의 약속을 밤시간으로 정해 놓고 나는 걷고 또 걸었다. 시커먼 불길한 것, 흉칙한 것이 새하얀 자리, 그 거룩한 형상 위에 덮여 있었다. 그것! 그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었다. 나는 치를 떨었다. 무슨 뜻일까.

나는 몹시 지쳐있었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고 쉴 수도 없었다. 그 시커멓고 흉칙한 것도 일단 제쳐두었다. 응암동 성당에서 함세웅 신부를 처음 만났다.

우리는 함께 보신탕집에 가 보신탕을 한 그릇씩 먹고 몇 잔의 소주를 하며 아주 간결하게 중요한 의견만 교환했다. 먼저 토착화. 토착화 노력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근로대중에 관한 것. 중요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민주회복국민회의. 함신부가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부터는 김시인이 대변인을 맡아줄 수는 없을는지?"

그날 밤 명동 전신상(全眞常)교육관에서 사제단 신부 10여 명과의

상견례가 있었다. 날짜와 얘기 내용들이 헷갈린다. 그날에도 그랬으나 지금까지도 그 시커먼 불길한 어떤 것이 자꾸 개입했었고, 지금도 간섭하는 것 같아 정확한 기억이 아닌 듯도 하다. 그러나 대충 있었던 일만 요약한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지속적인 반유신 민주화운동은 국민회의를 지도부로 하여 진행할 것. 그 과정에서 농민 · 노동자 · 여성 · 실업자 · 저소득층과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는 중산층의 이익과 견해를 대변하는 여러 기구들을 사제단의 노력으로 교회 안팎에 구성할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남북간 화해와 연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족적 주체를 국민회의 안에 성립시킬 것 등을 강조했던 것 같다.

그 때 그 자리. 기억은 섬세해진다. 두 사람의 신부. 문정현 신부님은 "그렇게 하지, 뭘!"이었고, 정호경 신부님은 "하하하 좋은데…"였다. 그리고 나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물러나 정릉으로 돌아왔다.

깊이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악몽으로 끊임없는 잠꼬대였다고 한다. 시커먼 그 어떤 것? 내가 가톨릭을 그만두게 된 몇 가지 동기 중의 첫번째 동기다. 그러나 이것만은 지주교님께도 얘기하지 않았다. 아마 내 짐작으로는 이 시커먼 불길한 것과 흰 길은 그후 아득한 뒷날 '흰 그늘'에서 그 분열이 통합되는 건 아닐는지….

여 론

나는 재판 도중 이철 · 유인태 부분에서 재일교포 조직휘와 일본인 다찌가와 · 하야카와 두 사람의 진술 녹음을 들었다. 민청학련의 두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때 나는 세 사람의 일본 관계자들에게 몹시 분개해 있었다.

그 분노가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터져나왔다. 쓸데없이 끼어들어 한국 내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아마 일본인들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준비중에 있던 다찌가와 · 하야카와 두 사람을 환영하는 하네다 공항에서 긴자까지의 국민행진도 취소되었다. 일본인 친구들의 나에 대한 비난이 연일 쏟아졌다. 나는 거듭되는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그들과 그들을 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엉터리 영웅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을 더욱 더 강화했다.

하루는 요미우리신문의 한국 특파원이 찾아왔다. 그 이름이 단도(丹藤). 그는 그 무렵 내가 만난 어느 일본인 기자보다 일본적 민족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인 두 사람의 실수와 신의 부족을 시인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세계주의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 했던, 유치하나마 가상스러운 행태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줄 수 없느냐고 부드럽게 말해왔다.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렇다. 내가 바라던 것은 바로 그런 태도였다. 나는 곧 그들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고 그들이 캄캄한 지하실에서 겪었을 고통에 대해 한민족을 대표해 사과했다. 그리고 일본 국민과 나의 벗들에게 그 두 사람을 따뜻이 맞이해 달라고 부탁했다. 요미우리신문 특파원은 웃으며 돌아갔고, 그것으로 일본과 나의 갈등은 끝났다.

훗날 방일중 그를 만났고, 그는 그후 10년 가까이 중국 특파원을 지냈으며, 그가 쓴 중국에 관한 비판적인 책을 선사받았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도 상승하는 중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겉은 화려하나 실제에 있어 가라앉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우익의 요미우리신문의 오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인들의 이런 태도가 좋다. 긍정과 부정, 이것과 저것이 함께 공존하는 살아

있는 사람! 이것이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의 진짜 얼굴이었다.

기독교회관

기독교회관 1층 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해 기독교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민청학련과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 전원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자리였다. 한마디씩 하라는 자리인데, 내가 한 말은 대강 이런 것으로 기억된다.

"그들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을 삼켰다. 소화하면 살고 소화 못 하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못할 일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 말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잘 생각하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뒤의 기독교회관과 기독교. 그것은 참으로 눈부신 운동과정이었으니 걸음걸음이 그들의 용기있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으로 빛나는 우리의 현대사다.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들 기독교인들은 약을 삼켰고 또한 그것을 소화시켰다. 단 하나 그들에 대한 더 큰 희망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원리주의,' 그 '펀다멘털리즘'을 하루빨리 넘어서서 동양 및 한국사상과의 보다 깊고 넓은 화해를 모색하라는 것뿐이다.